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11.(수) 11:00 (2026. 11. 11.(수) 석간)

안전보건공단-인력공단, '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VR 체험교육 사업 협력'

- 2022년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 협약의 후속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, 이사장 김현중, 이하 '공단')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 VR 기반 산업안전 체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11.11.(수)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은 2022년 양 공단과 송출국 주한대사관 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협약을 기반으로, 현지 VR교육기기 보급·설치·운영 및 교육효과 점검 등 구체적인 후속 이행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.

『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VR 체험교육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』

- 일시: 2026. 11. 11.(수) 11:00
- 장소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 6층 대청마루 (울산시 중구 소재)
- 참석: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교육총괄실장, 외국인협력팀장 등
  (한국산업인력공단) 외국인력국장, 외국인력도입부장 등

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, 양 기관은 앞으로 2년간 ▲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VR 기반 산업안전체험교육 추진, ▲VR 교육기기의 현지 보급 및 설치·운영 지원, ▲현지 교육담당자 대상 장비 활용 및 운영관리 교육, ▲VR 체험교육 시범 운영 및 효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학진 교육총괄실장은 "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 전 가상현실을 통해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법을 익힌다면 현장

배치 후 산재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 “공단의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정욱 외국인력국장은 “네팔 EPS센터를 시작으로 현지 안전교육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”이라며, “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라고 화답했다.

양 기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와 교육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, 향후 다른 송출국으로서의 사업 확대 및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.

담당 부서	교육총괄실 교육계획부	책임자	부 장	홍광의 (052-703-0711)
		담당자	차 장	김성권 (052-703-071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